

# 영유아기 및 학령기 아동의 발달 특성

## : 보령 베이비 패널 자료를 중심으로

박 혜 준(서울대 부교수) · 한 경 혜(서울대 교수) · 전 을 정(Miami Univ. 조교수)  
장 미 나(서울대 연구원) · 박 새 림(서울대 박사과정)

본 연구는 서울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에서 실시한 산학협력 프로젝트 결과 중 일부로,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0~8세 영아기, 유아기, 학령기 아동의 발달수준의 특성을 체계적으로 살펴보고, 이를 통해 부모교육 및 발달적 중재계획에 대한 시사점을 찾는 것이다. 조사대상은 16개 시도 지역에 거주하는 유아용품 개발 및 생산회사의 회원 중 0~8세 자녀를 두었으며 연구에 참여 의사를 밝힌 어머니로, 웹상으로 표준화된 아동발달검사에 응답한 총 2,078명이다. 연구도구는 자녀를 영아기(0~2세), 유아기(3~5세), 학령기(6~8세)의 3집단으로 나누어 연령별로 각기 다른 표준화된 발달검사도구를 사용하였다. 영아와 유아의 발달수준은 영아선별·교육진단검사(DEP)(장혜성·서소정·하지영, 2007)와 K-CDI 아동발달검사(김정미·신희선, 2006)로 각각 측정하였으며, 학령기 아동의 발달수준은 아동의 정서적 건강에 초점을 맞추어 정서행동평가 도구인 강점·난점 질문지(SDQ: Strengths and Difficulties Questionnaire)(Goodman, 1997)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. 수집된 자료는 SPSS 19.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기술통계, 교차분석, 독립표본 t 검증을 통해 아동의 전반적인 발달특성과 각 연령별로 성별에 따른 발달수준의 차이를 살펴보았다. 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.

첫째, 조사대상 0~2세 영아의 발달수준은 매우느림, 느림, 보통, 빠름, 매우빠름의 5수준으로 분류되었는데, 사회정서발달을 제외하고 모든 영역에서 "매우빠름"에 속하는 영아가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. 그러나 의사소통(24.5%) 및 사회정서(21.4%)발달에서는 "느림"과 "매우느림"으로 분류된 영아가 비교적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. 성별에 따른 비교에서는 의사소통, 기본생활, 전체발달에서 남아의 발달 수준이 여아에 비하여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. 둘째, 조사대상 3~5세 유아의 발달수준은 정상 및 위험군(경계선, 지연)으로 분류되었다. 각 하위영역에서 90% 이상의 유아가 정상 범위에 포함되었으나, 사회성 발달에서는 다른 하위영역에 비해 위험군에 속하는 유아가 현저히 높은 비율(23.7%)로 나타났다. 사회성 발달에서 위험군에 속하는 유아의 비율은 남아가 여아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다( $\chi^2=7.11$ ,  $p<.01$ ). 셋째, 6~8세 학령기 아동의 정서행동발달수준은 정상, 경계선, 위험군의 3수준으로 분류되었는데, 경계선 및 위험군에 속하는 비율이 31.6%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학령기 아동의 정서행동발달에 관심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. 성별에 따라서는 남아(14.5%)가 여아(7.4%)에 비해 위험군에 속하는 비율이 유의하게 높았다( $\chi^2=5.92$ ,  $p<.10$ ).

본 연구결과는 우리나라 0-8세 아동의 전반적인 발달수준에 대한 기초 정보를 제공해준다. 영유아기에 나타나는 인지 및 신체운동영역에서의 빠른 발달수준에 비해, 영유아기의 사회성 발달과 학령기 아동의 사회성과 관련된 정서행동문제 영역에서 발달 지연 및 위험군에 속하는 아동의 비율이 높게 나타난 것은 아동양육·교육 환경에서 아동의 사회성 발달과 관련된 부모교육 및 발달적 중재가 필요함을 시사한다.